

한겨레는 경제·교육·문화의 창간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언을 대학주자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창간지 2002 원고지 4~6매
○보령교: 서울·수원(보사편집실)

하이델(H): jiang 3
최리안(H): choahe

교수동정

배경화 교수 도미

【서울캠퍼스】배경화(문리대·물리)교수는 오는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MRS학회 참석 및 초청논문 발표와 미국 태평양지역에 관한 세미나 참석과 중국 방문에 배정되어 (의대·의학)교수=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42차 미국 심장학회 학술대회 참석과 미국 방문에 배정되어 (의대·의학)교수=오는 28일부터 4월9일까지 제4차 국제학술대회 참석과 미국 방문에 배정되어 (의대·의학)교수=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제54차 스위스 국제 학회 세미나 및 워크숍에 초청논문과 참석과 스위스 방문

▲김대경(의대·의학)교수=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제2회 아시아 구강악안면 외과학회에 참석, 연세 발표자 대안 방문

동기

등기물 추무과로

【서울캠퍼스】▲이종길(영문·2) ▲김진표(의대·2) ▲박유민(생물·3) ▲최용석(물리·4) ▲손동원(물리·4) ▲김경호(의대·2) ▲민영인(행정·2) ▲오창호(정보·1) ▲안상훈(정보·3) ▲안재경

안정에 갇힌 개혁 한계 뚜렷 변혁의 주체는 여전히 진보세력

안정속의 개혁, 이방은 그 자체가 보수속에 존재한다.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은 변혁의 주체는 여전히 진보세력

안정속의 개혁, 이방은 그 자체가 보수속에 존재한다.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은 변혁의 주체는 여전히 진보세력

동문모임

명덕고 신입생 환영회

【서울캠퍼스】오현고=오는 18일 오후5시 정문 앞 ▲부산 대동·남성고=오는 18일 오후 6시 coffee pot 2층 ▲윤문·성신고=오는 16일 오후 5시30분 녹원 ▲호남·영일 출신 각 고교·영고 등원(황우)배정=제정 호남·영일 황우회(720-9921~3, 764-2228(야간), FAX 720-9224)로 연락 요망

【수원캠퍼스】▲남곡 신일생원회=오는 19일 오후 5시 반 3호관 전담 ▲경주 황우회=오는 오후 5시 일교 앞 백지 ▲수원·영신고 신일생원회=오는 19일 오후 5시 반 2호관 전담 ▲한양·보성고 신일생원회=오는 20일 오후 3시 중리 보건강당 앞 ▲관산학우회=오는 5시 반 공대식당 ▲이리학우회=오는 17일 오후 5시 반 공대식당 ▲명덕 신일생원회=오는 17일 오후 5시 반 공대식당 ▲이리 학우회=오는 19일 오후 5시 반 공대식당 ▲경동문화회=오는 19일 오후 5시 반 공대식당

독자초대석

어느 노동자 아들의 성수

이 병 하 (미교·3)

도서관 사유화 해결해야 강제 철거는 해결책 안돼

책 목과 더불어 시작된 개방과 함께 캠퍼스는 긴 동년에서 깨어나 활기를 띠고 있다. 신학기라 시작되어 일주일도 안돼 도서관 열람실은 주인없는 책과 가방들로 북적거리는 실로 바빠졌다.

이 중 상 (금대 전자·4)

미악한 국제조세제도 개선 시급

93년에 취임한 클린턴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 4년중 150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 하는데, 이중 30%인 4500억 달러를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클린턴은 미국내에서 영업중인 4만5천개의 외국기업 중 72%가 소득세를 환돈으로 내지 않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도 미국기업들이 연간 매출액의 3.5%를 세금으로 내는데 비해 외국기업들은 1.5%밖에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전가격문제를 크게 중점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문제는 상대국과 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국제

알고보면 우리도 많은 나라

기적스런이라는 말이 있다. 경일이 이 쓰잘데 없는 '기적'이라 해서 웃어 놓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 해도 그 나쁘면 보이지 않는다. 책 자체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경제현실이 기적스런이라는 것을 결코 웃을 수 없게 만든다. 기적스런 '북의 기적'을 살펴보자.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은 1934년과 1935년 사이에 제3회인 9만7천8백을 행군으로 세계 최고의 긴 행군으로 기록됐다. 가장 긴 단어는 80% 알고 났으니 구상되어 있고, 가장 많은 성씨는 중국인의 9.7~12.1%를 차지하고 있는 장(張)씨이다. 가장 긴 도로는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의 학생들은 1988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장장 1백3시간45분동안 '모든 경공

클린턴, 외국기업의 탈세방지 주력

탈세 날로 교묘 이론적 대응 필요

청은 이같은 조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세정은 비연방법제 482조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조항'을 통한 탈세방지 조항의 시행체제를 강화하고, 93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실세 수익의 다과에는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93년부터는 국제적인 조세징징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는 필연적으로 상대국에서의 국제조세마찰이 발생하게

입학을 축하합니다.

오뚜기정신으로 공부한 보람!

입학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지칠때마다 오뚜기정신을 발휘한 때문이겠지요. 오뚜기도 그렇게 품질제일주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3년간의 인내와 노력 끝에 얻은 학력의 영광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내공직의 진출과도 인연이 있는 오뚜기의 명예도 학우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화과정신으로 공직에 뜻을 세우는 우리 장로와 후배들을 바쁘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노력한 결과입니다.

1학년, 졸업장은 최후를 유시하겠다는 결심은 생애의 수미에,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때마다 오뚜기정신

오뚜기정신으로 공부한 보람!

오뚜기정신으로 공부한 보람!